

## 일곱 가지 경고

### 하이로 파블로 알베스 데 카르발류

## 소개

성경의 역사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나팔은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민 11:10).

10:2).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팔 소리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당신의 손길은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두 번째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회중을 불러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민 10:8). 오늘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곧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히 4:14)가 있습니다. 그분은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하늘에서 나팔을 불십니다. 벨소리의 음성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보내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에서 “일곱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밝혀서 “종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제안하는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한 구절씩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로 해석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들에게 계명 위에 계명, 계명 위에 계명, 규율 위에 규율, 규율 위에 규율 위에, 여기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사 28:13)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에게 진리로 감동을 주시고, 위대한 부르심, 즉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의 백성과의 놀라운 마지막 재회에 대한 초대에 응답하도록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제1장

요한은 8장에서 나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구는 이것에 기초하여 시작됩니다.

### 하늘의 침묵

“일곱째 인을 떼시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계 8:1, 2).

성경은 천국이 병적인 묵상에 전념하는 존재들로 가득 찬 조용한 곳이 아니라 천사들의 노래로 기뻐하고 활동이 가득한 곳을 계시합니다.

여러 곳에서 그녀는 어떻게 천사들과 “새벽별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는가” (시편 38:7)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꿈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다.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창 28:12). “저희는 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히 1:13). 천국에는 땅에서 오고 가는 천사들의 끊임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총수는 "수천만... 수백만"입니다.

(단 7:10). 모든 사람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고 그 길을 지속하도록 돕는 일에 적극적이고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알면, “하늘에 고요하더니” 라는 요한계시록의 진술은 더 큰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극히 중요한 사건만이 모든 사람을 동시에 침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매우 엄숙한 순간이 제시됩니다. 하늘의 거인들이 그 광경을 묵상하기 위하여 찬양의 노래를 그치고 또 내가 보매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당신의 일시 중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나팔을 불 것임이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공기” (고전 15:51, 52). 일곱째이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찾으러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팔을 받아 불는 것을 보면, 하늘의 존재들은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갈등의 마지막 장면이 곧 펼쳐질 것임을 이해합니다. 나팔 소리는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영원히 거부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는 세계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 남자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

많은 것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곧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24). 사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를 가치 있게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그분의 피로 얻은 소유로 주장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중보하여 광범위하고 완전한 용서와 그분의 보좌에 함께 참여할 것을 구하십시오. 반면에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 12:10). 그 장면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책 몇 권이 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2).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라” (롬 14:10).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하늘에서 인간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고 충실하게 남아 있는 모든 사람의 경우에 변호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버지여” (마태복음 10:32). 고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나니 사탄아... 이것은 불에서 꺼낸 낙인이 아니냐?” (속 3:2). 그러나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 10:32).

사탄에게 영혼을 잃은 것은 예수님께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때가 끝났음을 경고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의식에서 예수님은 시험의 끝과 관련된 나팔의 역할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는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해를 기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전체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암기했습니다. 한 해는 일곱째 달,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끝났습니다 (레 25:8, 9). 그 날에는 모든 백성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괴롭게 하여 도말함을 받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그날에 고난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영혼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임이니라”, “그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임이니라. 너희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레 16:23, 28, 29, 30). 이스라엘인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겪게 되는 손실은 엄청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친척들, 그의 백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지 않을 것이며 그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인 가나안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속죄일 며칠 전에 경고를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가 안식할찌니라” (레 23:24). 속죄는 7월 10일 (레 23:27)에 이루어졌고, 첫날에는 경고의 나팔이 울렸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의식은 현실의 그림자였다. 종교적인 해는 속죄일에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속죄”의 때에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일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속죄일 전에 나팔을 불어 죄를 자백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천사를 보내어 나팔을 불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가 이 사업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만지는 임무를 받게 될 순간이 도래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침묵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최종 결정의 시간이 도래했으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비의 마지막 경고를 보내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누가 잡을 것인가?

나팔을 받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섰는” 자들이었습니다 (계 8:3). 천사의 수는 “천만, 수백만” 이다 (단 7:10).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봉사합니다. 하늘에서 사탄과 맞서는 강력한 천사인 가브리엘은 하늘 궁정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높은 지위를 보여 주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19). “하나님 앞에” 있는 가장 강력한 천사들은 지상에서 구원을 받을 후보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다하고 그 일에 최대의 힘을 다합니다. 이로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 2:3, 4).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천사들이 나팔을 받은 직후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를 보았다. 그에게는 많은 향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두려 함이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앞쪽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그 후에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계 8:3-6).

모세가 지은 성소의 의식에서 제사장은 분향하는 일을 담당했다(출 13:2). 30:8). 이것은 “향료” 로 조제되어 “향료 제조법에 따라 맛을 내고 순하고 거룩한 향유” 가 되었습니다 (출 30:34, 35). 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향로의 불씨 위에 바쳐져야 합니다. 불에 태워지면 그 향유가 내뿜어져 성소를 가득 채웠고, 어린양과 다른 제물로 바친 동물의 썩어가는 피의 악취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 제사장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 로 섬기는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

8:5). 그들은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이 하실 일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분은 “이러한 대제사장이시라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니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 9:22, 8). :1, 2)\*. 향의 좋은 냄새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상징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디서나 그분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14, 15)

---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참향의 좋은 향기, 즉 자신의 죄 없으신 삶을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 8:3, 4).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비록 그들의 죄의 악취로 오염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죄 없으신 삶의 좋은 냄새와 섞여 사랑의 아버지께 도달합니다. 향내가 땅의 성소에서 짐승의 썩은 피의 악취를 덮은 것과 같이 그의 의가 성도의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집니다. 인류는 아들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받은 직후에 주어진 이 환상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예수께서 여전히 인류를 위해 중재하실 것임을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팔 소리에 표현된 심판은 파괴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경고를 나타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후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한편, 이때 인간에게 허락된 은혜의 때가 영원히 끝날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 유예시간의 끝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라.”

(계시록 8:5).

예수님은 향로를 던질 것입니다 –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행위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끝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역하고 죄를 지은 죄인들의 집 없는 머리들 위에 자비와 섞이지 않은 채 쏟아질 것입니다. 이 진리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담하게 반역했을 때 전염병을 퍼뜨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향이 가득한 향로를 들고 서서

다시는 염병으로 사람이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서 기록은 이렇게 알려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두고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큰 분노가 나왔음이라. 전염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그것을 받아 회중 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보라,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시작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위에 향을 피우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민 16:44-48) 아론이 재앙을 억제하기 위해 향연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께 그의 의의 향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들이 부어지면 자비가 섞이지 않은 채 부어질 것입니다 (계 14:10).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의로운 보응 심판을 보류하여 모든 사람이 원할 경우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향으로 상징되는 그분의 공의를 계속 제공하시는 동안, 자비의 초대가 사람들에게 확장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이미 결정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향로를 던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로를 던지는 것을 본 직후 요한은 “그 때에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 8:5)고 보고합니다. 이 기록은 계시록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이 쏟아진 후에 우리가 발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와 큰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16:18) .

이는 예수님께서 향로를 던지신 후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비교를 제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땅에 쏟으니

그 후에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8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쏟으니...

또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와 큰 지진이 나더라”

보고서의 우연의 일치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둘 다 동일한 이벤트를 참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향로를 던지고 난 후 , 곧 향로를 던지고 얼마 후에 음성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곱째 재앙에 관한 기록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일곱 가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

일곱째 재앙: 음성들, 천둥,

번개와... 지진(계 16:18)

|-----|

예수께서 향로를 던지시니...

그리고는...목소리, 천둥,

번개와 지진(계 8:5)

요한계시록 8장 5 절 이후의 표현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를 말하며, 일곱째 재앙으로 끝날 때 그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를 가리킨다: “음성들과 우리와 번개와 지진들”. 본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향로를 던졌더니 그 후에 (일곱째 재앙에서) 음성과 우리와 번개와 지진이 있었습니다.

갑소사, 천사요?

향로를 드리는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계 8:3)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입니까? 원문에서 “천사”로 번역된 단어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자로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록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임을 기억하십시오.

1:1). 이 용어의 사용은 이 환상에서 적절합니다. 그 환상에서 예수께서는 일곱 천사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메시지, 즉 일곱 나팔을 보내도록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 제2장 - 첫 번째 나팔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 버렸느니라” (계 8:6, 7).

Saraiva 는 우박이나 돌비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우박은 일반적으로 얼음 돌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 야기에서 요한은 돌과 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하늘에는 백열등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슈팅스타'라고 부른다. 운석은 시속 80,000km에 달하는 속도로 이동하는 작은 돌, 즉 운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1초 만에 구름에서 땅까지의 거리를 커버합니다.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기와 마찰(스크래치)하고 불이 붙을 때까지 가열됩니다. 탁자 위나 부드러운 나무 조각에 손을 빠르고 세계 문질러 보세요. 당신의 손은 곧 “워밍업”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유성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들의 경우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기화되어 연기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똥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본다. 우리는 많은 유성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유성우"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흔한 일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유성우인 "플레이아데스"를 볼 수 있습니다.



João는 공중에서 증발하지 않고 대신 불덩이처럼 지구 표면에 도달하여 동물, 사람, 집, 자동차 및 건물에 떨어지고 나무를 태우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운석의 소나기를 보았습니다. 땅의 삼분의 일은 불타버릴 것이다 (계 8:7). NASA는 아래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운석비가 더욱 강력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NASA는 운석 소나기를 준비합니다.

2011년 10월, 드라코니드는 평소보다 더욱 폭력적이 될 것입니다.

2010년 6월 18일



- 국제우주정거장은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NASA는 10월 초 하늘을 가로지르는 용성 운석 소나기(주기 혜성 21P/Giacobini-Zinner와 관련됨) 동안 지구를 도는 위성과 우주선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위 폭풍"은 매년 발생하며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2011년 10월 8일 유성우가 평소보다 더 격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작은 암석이 국제우주정거장(ISS)이나 허블 망원경 등 우주선과 충돌해 파손될 수 있을 정도로요.

마살 우주 비행 센터(NASA)는 시간당 수백 개의 우주 암석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위험은 최소화되지만 연구자들은 이 가설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http://www.cienciahoje.pt/index.php?oid=43613&op=all> - 2010년 10월 13일에 액세스했습니다.

자연 사건의 파괴적 잠재력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목시록의 나팔에 묘사된 사건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그러한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은 자연의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재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고 그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들은 지진이 "구조적"이라고 불리는 지하 판의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브라질 판의 중간이 아니라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지진에 실질적으로 면역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수도 브라질리아까지 도달한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과학적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지구의 또 다른 지하층인 암석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에서 예측된 사건들이 그들을 놀라게 함에 따라 설명은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당시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기예보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도 범람하는 물 속에서 죽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기의 탐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전 1:19-21). 그러므로 나팔소리의 예언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고 없이” 도착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목시록으로 돌아가기: 첫 번째 나팔 성취의 즉각적인 결과가 곧 느껴질 것입니다. 토지 식물의 3분의 1이 불타면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슈퍼마켓에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식품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부모들과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슈퍼마켓과 모든 식품점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중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과 가족의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에 맞서는 것 사이에서 확실히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할 것이며, 그 결과는 특히 대도시와 내전에서 갈등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누구도 오늘날처럼 대도시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며, 배고픔과 사회적 불안정이 있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도시에 잘 위치한 수백만 달러 가치의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거의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은 다시 터질 것이다. 왜냐하면 차용인은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손에 쥐게 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위기에 빠질 것이고 정부에는 은행을 정리할 돈이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 많은 부자들이 가난해질 것이다. 사회의 가치관은 즉시 바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을 팔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할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전하기 위해 소유하고 가치를 투자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제 때에 전파하지 못한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알았지만 이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몰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나팔의 예언에 대해 경고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꿈이나 추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너무 늦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구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혼란이 닥쳐 유엔을 비롯한 각국의 구조대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만 보았던 것이 세계 각지의 도시 중심가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탈출구: 대도시에서 벗어나 나만의 음식을 재배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과 위로가 가득합니다. 위기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이른 줄 알라. 그러므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도록 하십시오. 들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러나 그 날에는 임신한 자들과 해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이는 땅에 큰 환난이 있겠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누가복음 21:20-23) 첫 번째 나팔이 성취된 후에는 밭에 작은 땅이 있어 스스로 먹을 것을 재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왕과 왕비로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거의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야채와 과일은 금값에 팔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골로 이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당시 현대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의 친척들에게서 그를 데려가셔서, 그 곳의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 옆에 살게 하셨습니다(창 14:13). 한 지방.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레 요한은 황량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시골 지역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가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의 분을 따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들은 들에 거하라. 그들은 첫 번째 나팔이 성취될 무서운 때에 일어날 많은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식량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끔찍한 시기를 직면하고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록 그토록 재앙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치욕이 땅에 떨어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분이 원인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 위성, 망원경 등 수십 년에 걸쳐 우주로 보내진 다양한 장비는 우주 공간에서 신체의 섬세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전에는 지구만 둘러싸던 천체가 인간에 의해 경로가 바뀌고 지구와 충돌하여 가장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 1:31). 나팔소리의 예언이 이러하니 사람이 심판대로 거두리라

당신의 나쁜 행동의 결과. 그리고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의 결과가 어떠할 것을 미리 알리시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일곱 경고 중 첫 번째 경고라고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골에서 집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 재난의 많은 “물리적” 결과를 피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은 훨씬 더 끔찍한 손실, 즉 영생을 피하기 위한 경고이자 준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을 신뢰하여 불순종에서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키라는 하늘의 마지막 부르심 중 하나입니다. 본문은 그 불이 “피 섞인 것” (계 8:7)이라고 말합니다. 피는 불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태운다. 그 표현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우리는 “생명이 피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였습니다. 멸하는 천사가 애굽 땅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의 집을 지나갔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첫째 나팔에서 선포된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공황과 함께 섞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끔찍한 재앙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 그 영향을 제한하실 것이며, 각 인간의 최선의 유익을 목표로 전체 상황을 관리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양심을 일깨워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숙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5:10; 14:21).

### 제3장 – 두 번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더라. 그러자 바다 가운데 생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졌습니다.”

(계시록 8:8, 9)

존 시대에는 오늘날의 강력하고 정교한 망원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용어

다른 천체를 지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요한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바위 같은 천체는 큰 산과 같았습니다.

현재 과학에서는 이를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는 산이 바다에 던져 지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지는 것과 던져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돌을 던지면 그냥 땅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을 던집니다. João가 사용한 발사된 표현은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소행성에 대해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직경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암석이며 시간당 최대 100,000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가지다

한 가지 생각으로는 구름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초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João는 발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소행성이 결국 지구에 접근하는 속도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토록 빠른 속도로 땅에 떨어진 돌은 누군가가 던진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잠시 선지자의 입장에 서서 불에 타고 있는 수 킬로미터 길이의 거대한 암석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1초 만에 하늘의 구름을 뚫고 바다로 떨어진다. 그것은 단지 “불타는 큰 산”으로 묘사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구가 실제로 소행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발표는 신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 하나만 더 언급합니다.

### 2003년 9월 2일 - 오전 10시 18분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는 중이며 2014년에 충돌할 수도 있다

Folha 온라인에서

지구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체를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영국 기관의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지름이 1km가 조금 넘는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는 중이며 2014년 3월 21일에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통계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세상의 종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250,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03 QQ47이라고 불리는 이 소행성은 32km/s의 속도로 지구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시속 115,000km에 해당합니다. 직경 1.2km...

참고: 위의 소식을 제시할 때 우리는 셋째 나팔에 예언된 사건이 2014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알고 있으며, 위의 뉴스는 예언된 것과 같은 충격이 더 이상 과학에 의해 불가능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영향의 전망에 직면하여 미국의 여러 대학의 연구 그룹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산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일부는 방문자가 소행성의 크기, 속도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검색 엔진에서 "소행성 충돌 결과"를 클릭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연구 중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의 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들은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요한이 본 것처럼 불이 타는 큰 산이 될 때까지 가열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물 속의 물은

소행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바다는 끓어오르고 물 속의 산소는 소모될 것입니다.

식물, 물고기, 고래, 갑각류 및 기타 해양 동물이 멸망할 것입니다. 무산소 환경은 홍조류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이런 환경. 그리하여 위에서 본 바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색을 띠게 될 것이다.

주의를 끄는 것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결론과 요한의 다음과 같은 보고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생물의 삼분의 일이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니라 (피 - 붉은 색). 다른 연구에서는 충격 후 파도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소행성의 추락은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질 때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떨어지는 지점에서는 호수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확장되고 넓어지는 원형 파도가 형성됩니다. 훨씬 더 큰 규모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대서양 한가운데 직경 10km의 소행성이 충돌하면 충돌 지점에서 높이 5km의 파도가 발생하고 전파되어 약 500m 높이의 미국 해안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최대 200km까지 대륙으로 진입한다. 이 거대한 쓰나미, 즉 파도는 많은 배를 침수시켰고, 이는 요한의 비전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림 - 쓰나미

우리가 머지않아 천체에 부딪힐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언된 사건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예언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스스로 예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행사를 준비해볼까요? 만일 우리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노아 때와 같으리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과 같으리라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면 생성된 파도는 여러 대륙에 있는 수백 개의 해안 도시를 파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산, 가족,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이제 바다 전망을 갖춘 귀중한 아파트는 더 이상 탐낼 수 없습니다. 많은

그들은 거대한 파도에 모든 저축과 일부 재산을 잃을 것이며, 그 파도는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끌려가고 해안과 항구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춘굴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방해받아서 이 생명과 영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광 도시들, 음란과 음란과 온갖 음란과 같은 죄의 중심지들이 물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비례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다. 구호 단체들은 첫 번째 나팔의 재난에 이 재난이 더해짐에 따라 혼란에 직면하여 전혀 무능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도처에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열방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당황하여 불안에 떨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진하느니라” (누가복음 21:25, 26).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바다 끝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이다” (스바냐 2:6)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안 도시에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시간이 있을 때 가족을 구하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 작은 도시의 시골 지역으로 이동하여 식량을 직접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가 지으신 사람이라” (창 2:8).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그분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곳에 거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곧 닥칠 재난과 기근의 때에 우리의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곳이므로 우리가 거기 거하면 셋째 나팔에 예언된 심판으로 말미암는 멸망을 면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 세 번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별의 이름은 압생트였습니다. 물의 삼분의 일이 썩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 8:10, 11).

요한은 “햇불처럼” 생긴 “별”을 보았습니다. 램프와 햇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불 햇불은 불의 연료가 있는 바닥 부분에 가장 밝은 점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꼬리처럼 바닥에서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빛나는 꼬리를 가진 천체에 붙인 이름은 “혜성”입니다. 코어 또는 베이스는 더 밝고, “꼬리”라고 불리는 가스로 구성된 뒷부분도 밝아집니다. 요한은 이와 비슷한 물체가 바다 위에 떨어지지 않고 땅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충격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니 물이 쓰게 되었음이니라”

(계시록 8:11) 혜성의 충돌은 지구 표면에 커다란 분화구, 즉 구멍을 열게 됩니다. 땅을 구멍에 집어넣을 때처럼 표면이 땅 속으로 밀려 들어갈 것입니다.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의 지하수 및 하수관, 매립지, 방사성 물질 매장지의 전체 구조가 분쇄됩니다. 방출된 독성 물질 중 일부는 오염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라고 불리는 신선한 지하수.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충격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은 원자폭탄의 폭발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3 QQ47이라고 불리는 이 소행성은 32km/s의 속도, 즉 시속 115,000km에 해당하는 속도로 지구에 접근합니다. 1.2km에서... 이 크기의 천체의 충돌은 거의 60년 전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것과 유사한 2천만 개의 원자폭탄의 폭발과 맞먹을 것이라고 객체정보센터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지구에 가깝습니다.” 출처: Folha On Line, 2003년 9월 2일.

이를 바탕으로 충격의 다른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파괴는 일본 도시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방출된 방사선은 수천 킬로미터의 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은 또한 혜성의 핵에 포함된 방사선과 기타 독성 물질에 의해 오염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물은 독성을 띠게 됩니다. 요한은 충격의 결과로 물이 썩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유독하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혜성에도 같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성격과 사명을 나타냅니다. 이 두 번째 의미의 예는 구주의 탄생 소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JESUS)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1). 주앙이 본 별의 상징적 이름은 그것이 일으킬 일과도 관련이 있다. 그것은 썩 이라고 불리며 독성이 있으며 물을 독살하여 썩으로 만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오염될 것이다. 재앙이 온 땅에 퍼질 것이며, 첫째 나팔의 결과로 초래된 기근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쓰게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 8:11) 라는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셋째 나팔에서 예측된 충격은 또한 네 번째 나팔의 보고를 성취할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제5장 넷째 나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리하여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의 삼분의 일은 빛나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리라” (계 8:12).

큰 천체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하려면 손에 풍선을 들고 펀치를 쳐보세요. 무슨 일이야? 손이 닿는 지점에서 타격을 보상하기 위해 반대쪽으로 확장하면서 "가라앉습니다". 이제 이 풍선에 물이 가득하고 구멍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펀치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풍선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와 손에 가해지는 압력을 보상합니다. 물로 채워진 새는 봉지를 찌내면 동일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지구상에서도 더 큰 규모로 일어날 것입니다. 혜성의 충돌로 인해 지구의 내부 층이 움직이고 표면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내부를 차지하는 물질로 액체물질로 구성되어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

온도가 높으면 지구의 "구멍"을 통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행성에는 실제로 화산이라고 불리는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녹은 용암이 고압으로 분출됩니다. 혜성이 충돌한 후, 지구 표면에 가하는 "펀치"에 의해 생성된 압력은 많은 화산 폭발로 완화될 것입니다. 그들 각각은 수천 톤의 용융 금속, 유황, 독성 폐기물 및 검은 연기를 하늘로 던져 태양과 공기를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결과는 2010년 10월 아이슬란드에서 단 하나의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유럽 항공편의 거의 절반이 취소되었습니다. 화산 근처에서는 연기가 모든 것을 검게 만들어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지 1 -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한 연기가 지평선 너머로 퍼졌습니다.



이미지 2 -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한 연기가 지평선 너머로 퍼졌습니다.



이미지 3 – 낮에 촬영한 이미지 – 화산 연기로 인해 가시성이 저하됨 – 출처: BBC Brasil Video.

위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성경 본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우리 성서 번역판에서는 낮과 밤의 삼분의 일 동안에는 별들이 빛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판에서는 땅의 삼분의 일이 실제로 충돌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의 빛이 어두워질 것이다. 묵시록에서는 연기로 인한 어둠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별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별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습니다. 낮과 밤이 그 빛의 삼분의 일을 잃었느니라” (계 8:12).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즉, 땅의 3분의 1이 화산 연기로 하늘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확물 전체가 손실될 것이며, 첫 번째 나팔이 성취된 후에 발생할 기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 24:7)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나팔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가장 순진한 독자는 예수께서 천사의 부름에 따라 유성, 소행성, 혜성을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여 황폐화를 일으키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질서 자체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의 다양한 요소들은 섬세한 균형에 따라 회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행성은 매일, 24시간마다 자전합니다. 게다가 태양 주위를 365일 4시간마다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회전하는 지구 주위에는 또 다른 별인 달이 회전합니다. 여러 요소가 동시에 회전하며 서로를 중심으로 각각 고유한 경로를 따라 회전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수천 대의 자동차가 서로 만나고 교차하는 대도시의 큰 교차로와 비슷합니다. 경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큰 재난이 발생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쌓여 모든 교통이 정지됩니다. 인간은 위성, 항공 우주 탐사선 및 선박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지구상의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려 여러 종의 동물을 멸종시켰듯이, 우주의 균형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정상적인 상태에서 단순히 하늘의 궤도를 완성할 별들도 그 경로가 바뀌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며, 예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켜 죄를 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파멸: “지고한 지혜가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 그분은 거리를 통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차로에서, 혼란 속에서 외쳐라. 성문 어귀와 성에서 말씀하시되 언제까지 미련한 자들이 너희가 궁핍한 것을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너희가 조롱을 원하겠느냐? 그리고 너 미친놈들아,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으로 회심하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풍성히 부어 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잠언.

1:20-23).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언에 따라 뿌린 대로 거두기 위해 경고의 표징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충고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책망을 멸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피로 만족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방황은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행통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잠 1:29-31).

## 6장 – 하나님의 교회의 각성.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푸른 풀도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더라. 그러자 바다 속에 있던 생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물샘에 떨어지니 별의 이름은 압생트였습니다. 그리고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어 되었고, 그 물들이 쓰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당하여 그리하여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의 삼분의 일은 빛나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리라”(계 8:6-12).

요한계시록 8장에는 처음 네 나팔의 이야기가 중단 없이 이어진다.

선지자 요한은 나팔 소리 가운데 주목할만한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둘 사이에 시간이 많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심판은 빠른 속도로 쏟아질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에서 회복되어 숨을 쉬기 전에 다른 하나가 뒤따르는 식으로 네 번째 벨이 울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4차 재앙 이후 국제인도적 지원단체와 NGO, 지원단체들은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요한이 보고한 것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넷째 나팔 이후에야 세상을 전파하고 경고하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 불지 아니한 세 천사의 다른 나팔 소리 때문이니라”(계 8:13).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가 설교했다는 본문을 보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계시록은 진리가 상징으로 밝혀져 있는 책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문맥 자체에서 보면 독수리 가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은 동물이 하지 않는 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독수리를 멸망과 죽음의 전령자로 언급하셨습니다. “주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마 17:27). 따라서 독수리는 많은 사람이 멸망당하고 목숨을 잃을 사건을 알리는 종을 상징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성취되는 일련의 재앙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깨어나 큰 소리로 세상에 전파합니다 (계 8:13). 오래 전에 예수께서는 잠자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지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의 상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들 중 다섯 명은 등잔에 여분의 기름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 기별을 전해야 할 의무에 깨어 있지 않았습니 다.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 졸며 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5:5).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종들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할 만큼 깨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모범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설교했는지를 보면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죄의 일시적인 즐거움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의 시야를 여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그분을 만나러 나가세요!

그러자...저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손질하였더라” (마 25:6, 7).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교회를 깨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에서 신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이 왔습니다!”라는 광고 그분의 두 번째 재림이 임박했음을 지적합니다.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립니다. 그 성취에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신랑이 올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분을 만나러 나가세요!” 그때 그의 종들인 현대의 처녀들이 깨어나 독수리처럼 땅을 돌며 ...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직 불지 않은 세 천사의 나팔 소리 때문이 아니라.” (계시록 8:13) 그러면 온 세상이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 2:3, 4).

이 메시지는 일곱 나팔의 예언을 연구한 자들에 의해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사건들과 비교하여 그 사건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연주하지 않은 세 천사의 또 다른 나팔 소리를 알리는 외침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계 8:13).

평화롭고 평온한 시대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교회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때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이들을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에 비유하시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행 5:32)이며,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임명됩니다. (계시록 14:12)

그때까지는 밀과 가라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왔지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구별되는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처녀가 일어나 등을 준비” (마태복음 25:7)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항상 더 쉽고 대중적인 면을 추구해 온 사람들은 신자들과 함께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세 나팔 때에 닥칠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지니 당신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사라.” (마태복음 25:8, 9) 작은 세부 사항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참된 종들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행동하고 매일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키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평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한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올리브유를 살 수 없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경우는 절망적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사러 갔더니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주님, 주님,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10-12)

넷째 나팔 이후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그 당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화”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세 나팔 때에 멸망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당신에게도 적용될까요?

내가하지 희망!

신자들은 처음 네 나팔의 충격으로 잃어버린 숨을 회복한 후에 깨어 행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재난에 직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세력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최대의 강도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신의 투쟁? 인간의 영혼을 위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섯째 나팔의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7장 - 다섯째 나팔

### 위기에 대한 인류의 대응과 적그리스도의 계시

#### - 하나님은 재난에 책임이 없으시다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그분의 성품과 행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성경은 이교 선원들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요나와 함께 있었는데 큰 폭풍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시로 이해했습니다.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데 익숙했던 그들은 이번에는 누구에게 "신의 분노"가 불타올랐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동무에게 이르되, 자, 제비를 뽑아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느니라” (요한복음 1:7). “이전의 것이 장래에도 있으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 1:9).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흔히 듣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재난을 신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20).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 있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 입니다(민 14:18). 그러나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잠 25:2).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때로는 직접적으로 형벌을 행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형벌하기를 매우 꺼려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간음한 막달라 마리아를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11). 성경은 멸망의 행위가 하나님께 “이상한 행위” 라고 말합니다 (사 28:21). 창조주이자 생명의 수여자가 파괴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불행을 그분께 돌리고, 그분의 성품에 오점을 남기고,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그분을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특히 이 마지막 날에 이 거짓 개념을 이용할 것입니다.

처음 네 나팔에 묘사된 재난을 겪은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를 자극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근절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을 보상하기 위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종교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롬 3:28). 그러나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는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완전히 불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굴욕적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교도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분노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들의 불순종을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인도를 신뢰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묵시록의 처음 네 나팔에 예언된 재난으로 세상이 황폐화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안내자들과 상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목자들의 대답이 준비될 것입니다. -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께 속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교회의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희생하고 죽여라.” 그러면 중세 시대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모닥불과 단두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릴 것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는 거짓 신자들은 대열을 버리고 더 쉽고 대중적인 다수의 편에 합류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이르면 즉시 넘어지느니라” (마 13:21). 참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계속 들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의 때가 이르면 신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당신처럼 예언을 연구한 종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음 단계는 인간의 교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 이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기별을 가진 사람들을 죽일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저주를 봉인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테반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구원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쫓아내고, 스스로 정죄를 받게 했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었던 서기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끔찍한 멸망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계의 운명이 예측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그 구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그들도 받았느니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다.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쳐서 고통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죽기를 원할 것이며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계시록 9:1-6).

성경적 상징에서는 “별들은 천사들이다” (계 1:20).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계 9:1). 그렇게 하면서 요한은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우물에서 솟아오르는 것” (2절)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을 진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기슭에 섰습니다. 시내 산 전체가 연기가 났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출 12:1).

19:17, 18). 요한은 사탄이 열어 놓은 무저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원수가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조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표현을 위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Paulo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너희를 권하노니 쉽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운 것처럼 너희 생각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속이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과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하나님의 성소에 앉느니라, 자신을 신이라고 소개합니다.” (딤후 2:1-4). 멸망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계시록에서 그는 멸망으로 향하는 짐승으로 식별됩니다. “그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니 멸망이 지나가리라” (계 17:8).

적그리스도 = 멸망의 아들(살후 2:3)

짐승 = 멸망으로 간다(계 17:8, 11)

적그리스도 = 멸망으로 가는 짐승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므로 아무도 미혹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용이 그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고... (엡. 13:1,2,4). 그녀가 송배를 받는다면 종교 지도자만이 될 수 있다. 그녀에 관해서는 “그가 오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고도 합니다. (계시록 13:5) 그는 신성모독을 말하는 오만한 종교지도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자신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이 되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33). 종교지도자 그 이상

여러분, 이 말을 이행하십시오. 그는 성경을 성취하여 하나님이며 자신을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내십니다 .

“우리 주 하나님 교황이 법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믿는 것은... 이단적입니다.” 출처: 교황 요한 22세의 사치의 광택, Cum. Inter, 제목 14, 4장, "Ad Callem Sexti Decretalium", Column 140, Paris, 1685.

교황관의 제목에는 "Vicarius Filii Dei"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하느님 아들의 대리자 또는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제시합니다. 상징적 표현은 이 교황의 출현이 시내 산에 나타난 주 여호와와 출현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임을 보여 준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거기에는 사탄의 활동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계 9:2) 성경적 상징에서 무저갱은 죽음의 장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 곧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 하심이라” (롬 10:7).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을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누군가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서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때부터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의 기억이 망각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뭉이 없느니라” (전 9:5, 6).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의인들은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다.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살전 4:16; Ap).20:5)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와 대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 ”

18:10-12). 죽은 자들은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아무 뭉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문의하는 사람은 성경을 어기고 죽은 자의 모습을 위조하는 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과 그의 악귀들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악한 나라들을 쫓아내셨다. 영매술이라고 불리는 죽은 자와 상담하는 행위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매술 센터에 나타나는 소위 “친숙한 영들”은 죽은 가족 성원들의 모습을 취하고 모방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는 악귀들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마지막 때에 사탄은 그의 주요한 속임수인 강신술을 통해 부활한 교황을 세상에 제시할 것임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다음과 같은 말을 문자 그대로 성취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으라” (살후 2:9, 10). 우리는 그가 쓴 내용과 모순되는 죽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형태로 그의 악마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우리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8, 9).

위 본문에 제시된 인간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다섯째 나팔 당시의 세계 상황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그들은 심판이 땅에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성서를 구하는 대신, 그들은 대중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지하여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관행은 오늘날 이미 일반적입니다. 일반 회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가 아니라 “교회가 이르느니라”나 목사, 주교, 교황의 말씀이 유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7:17). 그러나 대중의 의견으로는 교회의 교리와 부모의 전통이 타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류의 역사를 보내사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후 2:11, 12) 진리를 끈질기게 거부하고 인간의 원칙을 고수한 후에,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을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의 자비에 맡기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우주에 보여줄 것이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의 때는 천국의 심판의 때요, 인간에게 마지막 기회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만, 창조주께서 그들을 대하실 때 그분의 심판이 의로우실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부에 반역하고 하늘에 대한 당신의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을 안전하게 데려가실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영속시키고 우주 정부의 전체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하려는 그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그들이 선택한 리더의 지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편에 서서 그의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大敵)이 큰 속임수를 행할 때 그들은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그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전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데,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를 따르도록 인도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네 번째 나팔 이후의 세계 상황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시록의 첫 번째 나팔이 성취될 때 다가올 재난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트럼펫: 유성우

두 번째 나팔: 소행성이 바다에 충돌하는 현상

세 번째 나팔: 혜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넷째 나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땅의 삼분의 일을 가리우느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지구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재난과 혼돈의 상태를 만들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가 두 가지 관련 운동, 즉 정치적 운동과 종교적 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 분야에서 세계는 지구의 정부를 재편하고 지구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 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년 동안 발표되었던 정부 구조가 완전히 통합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은 열 왕국과 열 왕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묵시록에는 상징이 게시된 것처럼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 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왕으로서 권세를 잠시 동안 받으리라 ” 계 17:3, 7,12).

이 예언의 성취를 향한 움직임은 1970년대부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클럽은 지역 분할과 전 세계의 통합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클럽의 결론과 권고 사항은 때때로 특별하고 극비 보고서로 게시되며, 실행을 위해 권력 엘리트에게 전송됩니다. 1973년 9월 17일, 클럽은 세계 정부 시스템의 지역별 모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하나를 보냈습니다.

문서에는 클럽이 세계를 "왕국"이라고 부르는 10개의 정치/경제 지역으로 나누었음이 나와 있습니다. 출처: Rumbo a La Ocupación Mundial, 페이지. 60, 61 (강조 및 강조 추가) “O Oitavo, chap. 7 - 출판사 4 Anj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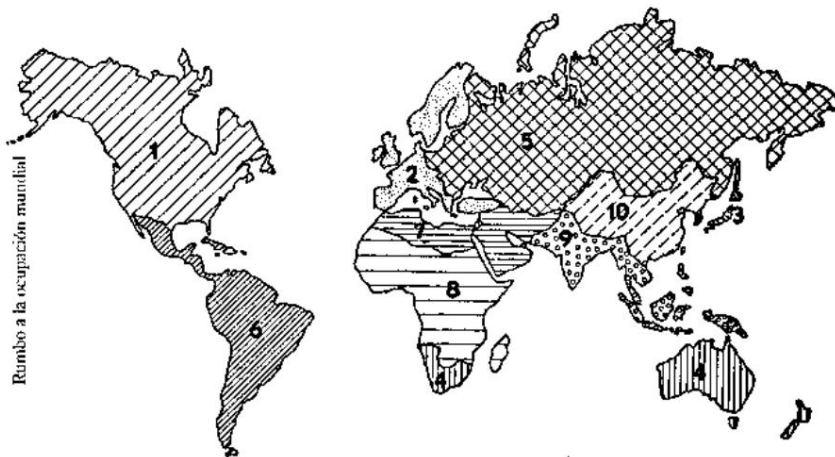


그림 - 로마 클럽에 의한 세계의 열 왕국 분할(1973)

출처: 책 “Rumbo a la Ocupación Mundial”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새로운 정부의 구성을 요구하는 세계 최고 권위자들의 요구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09년:

- 새로운 질서의 탄생





BBC 브라질 - 2009년 3월 30일

폭풍우 이후, 우리는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화재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거의 파괴한 후, 2007년에 시작된 위기 속에서 건축가들은 이미 새로운 구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세계 20개 주요 경제국의 지도자들이 이번 주 런던에서 만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 및 정치 질서 창설을 시작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BBC 브라질(강조 추가)

온갖 팡파르와 신세계질서의 출현 발표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그것이 아직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그녀에 따르면, 세계는 열 명의 왕이 통치하는 열 개의 대왕정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의 최종적인 정치적 형태가 될 것입니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왕으로서 권세를 잠시 동안 받으리라” (계 17:12). 이 단계에 이르면 세상 정부가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니... 이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자기들의 권세와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계 17:13).

처음 네 나팔의 재난은 아마도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라고 불리는 세계 정부의 재조직 과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더욱이, 2009년에 발표된 이 새 질서의 창설은 이제 이 책에서 연구한 예언들의 성취를 볼 때가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끝이 다가왔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세상 정부는 교황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권세와 권세를 짐승에게 붙이리라” (계 17:13). 또한 성경을 확증하면서 교황은 이미 신세계 질서가 한 사람(그)에 의해 통치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퀼라에서 G8 회의가 열리기 불과 24시간 전, 베네딕토 16세는 어제 교황청 기자실에 나타나 교황의 세 번째 회칙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진실의 카리타스, 즉 '진실의 자선'은 경제 위기의 사회적, 도덕적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6개 장, 141페이지에 걸쳐 조밀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교황은 '길'을 옹호합니다.

법에 의해 제한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진정한 세계적 정치적 권위'의 형성을 포함해야 하는 세계화를 조직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목표: '세계 경제를 통치하라'.

출처: <http://www.ionline.pt/conteudo/12233-os-ingredientes-bento-xvi-uma-nova-global-order> - 2010년 6월 22일에 액세스함(강조 추가).

처음 네 나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정치적 변혁과는 별개로, 이 시대 인류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것은 종교적 가치 분야에서 일어날 변화들입니다.

인간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9월 11일 쌍둥이 빌딩 테러 이후 처음 6주 동안 미국 교회 예배 참석자 수는 300%, 즉 3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훨씬 더 크고 더 비참한 재난이 전 세계를 덮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절망에 빠져 종교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다른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회를 이용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저갱을 열었습니다”(계 9:1, 2).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별, 즉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다. 그는 무저갱을 여는 권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곧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계 17:8). 여기에 계시가 합쳐진 것 같습니다. 무저갱이 열리는 순간부터 무저갱에서 올라올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황들은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 지구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의 출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편리하고 적절하게 보일 것입니까! 사탄이 제안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섭리로 열렬히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세상은 이 속임수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계시록 13:3, 8).

---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24 - 개정 및 수정된 미국역). 계시록에서는 신세계질서의 정부를 내다보면서 땅의 지도자들이 교황에게 권위를 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 시간 동안, 짐승과 함께.

이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 주리라”(계 17:12, 13).

(참고: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은 어떤 교황이 마귀로 화신하여 세상을 속일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계시는 Editora Advertência Final에서 출판한 책 “The Last Pope”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네 나팔의 재앙이 세상에 떨어졌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교황권,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가톨릭 교리문답의 충실한 사본, 바티칸 판:

하나님의 율법:

인간의 법칙:

십계명		
출애굽기 20.2-17 신명기 5.6-21 교리문답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넌 자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이집트, 속박의 집에서.	나는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 나...	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나...	것들.
너는 거기 있는 것과 유사한 어떤 것의 조 각한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든지 아래로 땅에든지 땅 아래 물에든지. 너는 이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 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다.		
너는 헛된 말을 하지 말라 헛된 말을 하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을 헛되이 말하는 사람 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름.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거룩한 이름 곧 네 하 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일컫지 말라... 헛된 이름.	
안식일 을 기억하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일요일 을 지켜 거룩하게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하라. 경비 파티.

출처: 가톨릭교회 교리서, 바티칸 일반판, p. 539(강조 추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교황은 일요일을 의무일로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멸망에 들어가느니라” (계 17:11).

적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잘못이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따라갈 것이다

교황은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할 수도 있느니라” (요한복음 5:3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가르침에 맡기는 자들은 오류의 작용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당시 지구의 구세주로 여겨졌던 교황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큰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1 - 짐승의 숭배자들 - 압도적 다수가 될 것입니다

2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계 14:12)

인간의 영원한 파멸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섯째 나팔 직전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내실 것입니다. 지구! 아직 불지 않은 세 천사의 다른 나팔 소리 때문이니라” (계 8:13). 성서의 다른 번역판에 나오는 이 독수리 즉 천사 뒤에는 마지막 세 나팔의 울림 과 동시에 주어진 소식을 전하는 세 천사가 뒤따릅니다. 이는 천국이 죄인들에게 보낸 마지막 초대를 나타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큰 소리로 이르되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가 그를 따르며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만민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느니라.

셋째 천사가 따라오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혼합함이 없이 그의 진노의 잔에 따르리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의 고통의 연기는 영원무궁토록 계속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의 견인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6-12)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설교한 후 요한이 본 다음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아들처럼 앉으신 이가 계시더라. 사람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느니라” (계

14:14). 그러므로 우리는 세 천사의 메시지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진 메시지임을 이해합니다. 짐승과 땅의 왕들이 성도들을 박해할 그 때에 최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다 . 우리는 이후 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 도덕적 암흑 속의 밝음과 메뚜기의 습격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 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그 구멍에서 솟아올랐습니 다. 그리고 우물의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니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육지 전갈이 가지고 있어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쳐서 고통을 주는 것과 같았습시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죽기를 원할 것이며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계시록 9:1-6).

무저갱이라는 말은 귀신이 많이 있는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다라 사람을 사로잡은 천사들은 “그들을 무저갱에 보내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8:31). 묵시록의 선지자는 무저갱이 열리자 많은 메뚜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벌레의 행동이 없었습시다. “땅의 풀이나 채소나 모든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사람에게만 해하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남자들을 괴롭혔습시다. 나중에 요한은 그들에게 “그들 위에 왕이 있으니 곧 무저갱의 천사가 있으니라”고 보고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말로는 아볼루온이더라” (계 9:11).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라는 두 용어는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무저갱의 멸망의 천사는 사탄 이다. 메뚜기들은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시다. 그때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상징의 다른 의미 중에서 메뚜기는 "악마"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요한은 무저갱이 열리는 순간을 보았고,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려고 떼로 나왔습시다.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더러운 영에게 괴로움을 받더라” (누가복음 6:18)고 말합니다. 괴롭히는 것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수의 소유물이 목격될 것입니다. 성서 기록에서는 악귀들이 겪는 고통이 전갈의 고통과 비슷하다고 알려 줍니다. 물린 사람의 거의 100%에서 의학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은 괴로움을 동반한 극심한 통증입니다.

"화끈거리고, 찌르고, 육신거리는 통증이 촉진되면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고 영향을 받은 사지의 뿌리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출처: CUPO P; AZEVEDO-MARQUES MM & HERING SE. 독이 있는 동물로 인한 사고: 전갈, 거미. Medicina, Ribeirão Preto, 36: 490-497, 4월/12월. 2003.

악마는 희생자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야기할 것입니다. 묵시록은 또한 사람들이 고통과 고뇌 속에서 다음과 같이 원하지만 악마의 활동으로 인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은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기를 원할 것이며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성서 기록과 일치하게 의학에서는 전갈에 쏘이면 치명적일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인용된 동일한 출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전갈에 물린 피해자인 HC-FMRP - USP 응급 부서와 함께 운영되는 Ribeirão Preto Poison Control Center에 9,228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습니다." (강조 추가). 이 중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해 천 건당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언은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니” (계 9:8)라는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께서는 왜 귀신이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장대한 계획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흑암의 왕국이 흔들렸습니다. 거의 4000년 동안 사탄은 “이 세상 임금”으로 통치해 왔으며 그리스도를 가장 확고하게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패배시켰습시다. 심지어 엘리야와 모세도

삶의 어떤 순간에 그들은 유혹자의 간계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대신 바위를 치라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분은 적들의 도발과 이스라엘 폭도들의 분노에 굴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 앞에서 믿음으로 홀로 남아 약해졌습니다. 그는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사탄의 간계를 이기신 진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세 번이나 그분의 남은 생애 동안 셀 수 없이 그분을 시험하셨으나 차례차례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셨고, 봉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왔으되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30).

복음서에 따르면 사탄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시험했지만, 그분의 노력이 가장 강화된 때는 그분의 사역 3년 반 동안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청년으로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그분의 모든 육체적, 지적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사탄은 그분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만 그분을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 살짜리 아이가 간음을 범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고 그의 능력의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분은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 4:1)셨다. 이때 적군은 제한 없이 접근하여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대항할 수 있었지만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악마들에게 이전보다 더 자주 사람들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분의 통치의 문을 연 불쌍한 영혼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일어난 일과 비교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마 15:21), 젊은 미치광이(마 17:15-18), 가다라 귀신 들린 자(눅 8:26-30)는 구주께서 풀어 주신 많은 귀신들린 자들 중 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세상은 것처럼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원수와 그의 악한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원수와 그의 마귀들이 자제력을 잃고 필사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교회에 재현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있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와 함께 따르는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더라.

...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계 14:1, 4). 참고: 예수님처럼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전에 있었던 것은 장래에도 있으리라” (전 1:9). 교회가 그 구성원들의 품성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재현할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행동도 교회를 대적하여 재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많은 소유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인 양측은 최대한의 힘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원수는 위에서 언급한 일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유혹자의 공격에 저항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들은 불쌍한 희생자들에게서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재현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12). 하지만 성서에서는 행해진 기적이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사탄은 또한 그의 대리인을 통해 치료를 수행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24).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 언급된 하나님의 보호의 표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 점은 분명해집니다.

#### - 보호 표시

다섯째 나팔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성경 번역판에는 “인봉”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징”이 있습니다:

“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엡.

9:4 - 개정 및 수정된 미국 버전).

성경은 안식일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제시합니다. “내가 또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었나니 이는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겔 20장) : 12). 이때에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보낸 마지막 밤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천사가 사람에게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해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보호의 표를 제정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피가 문설주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그 표징을 보고 그 집을 지나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표징이 없으면 만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절(Easter)을 기념하는 것이 '넘어가다'라는 뜻의 준비 예식을 일컫는 말로 유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파괴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넘어가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몸을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파괴하는 천사들과 협상할 가능성도 없을 것입니다. 표징이 없다고 변명할 수는 없지만 그 날 범 죄자는 풀려날 것입니다.

순종만이 보호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봉”이나 “표징”이라는 단어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려면 그 계명을 모두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모두 죄가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2:10).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율법을 요약하는 원칙,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구절에서 이를 확증합니다.

인장이 있어 하나님의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느니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딤후 2:19).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묵시록에서는 오직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이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마술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만, 사도행전 당시의 마술사 엘루마처럼(행 13:8)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분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때에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각 사람이 어느 편에 섰는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능력 있는 성도들의 설교를 통해 모든 사람은 넷째 계명의 중요성에 관해 그들의 양심이 밝혀질 것이며 오직 여호와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을 통해서만 그분께 순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의 최종 결정은 끔찍한 종교적 갈등 가운데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들은 신세계 법과 질서의 적들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거짓 고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추방될 것이며, 사고팔 수 없게 될 것입니다(계 13:16, 17).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요한복음 17: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 말이 참으로 진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건의 자비에 맡겨진다면 그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어려움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터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 24:22). 악인들이 다른 문제에 주의를 돌릴 것이기 때문에 박해는 완화될 것입니다. 이는 다섯째 나팔의 상징과 관련이 있는데,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 - 전쟁 시나리오

성경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여러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사탄을 대표합니다.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 (계 12:9).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예수의 삶을 공격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이교 로마 왕국을 상징합니다. “용이 막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였느니라.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더라” (계 12:4-6). 이 경우 여자는 마리아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교 로마의 헤롯 왕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셉에게 보내어 소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 사막의 이집트 땅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많은 상징들이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메뚜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악마를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군대를 상징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 상징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러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 느치, 벼룩, 오루가가 당한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라” (Jl. 2:25). 특별한 방법으로, 동방 지파의 군대는 사사기에서 다음과 같은 상징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하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동쪽에서도 그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들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새로운 땅을 멀하여 가사에 이르기까지 이르렀고 이스라엘 중에 식물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와서 그들과 그들의 낙타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멀하려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삿 6:3-5) “동쪽에서 온” 사람들은 소위 “아라비아 부족들”, 즉 오늘날의 아랍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나팔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메뚜기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아랍인들이 이 예언을 부분적으로 성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의 유럽 전역에서 교황 세력에 의해 박해를 받고 끔찍한 종교 재판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랍인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에 의한 것과 유사한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농작물을 파괴했고, 이로 인해 박해자들은 일시적으로 성도들의 초점을 영토 방어 문제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해의 날이 단축되었습니다. 무슬림 아랍인들이 없었다면 당시 번성했던 개신교 개혁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의 예언은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1 - 교황의 군대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2 - 그들은 “메뚜기”로 대표되는 아랍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멸망되지 않았는데, 이는 예언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괴롭히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계 9:5).

3 - 이야기에 따르면 아랍인들은 군사 행동을 하면서 개신교 개혁의 신자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섯째 나팔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땅의 풀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 9:4). 교황주의자들은 공격을 받았지만 개혁자들은 보존되었습니다.

---

역사는 그 예언이 정해진 때에 성취되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성서에 따르면, “다섯 달” 동안 하나님의 표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메뚜기들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달의 날짜 수는 우리 달력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다섯 달이 정확히 150일에 해당한다고 알려 줍니다. (창 7:11; 8:3, 4). 다섯째 나팔과 같은 상징으로 드러난 예언들도 상징적인 방식으로 시간의 해석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은 “말일 곧 해의 끝에” (다니엘 11:13, American King James Version) 라는 열쇠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는 1년과 같습니다. 다섯 달은 150년에 해당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라센(무슬림)은 동로마 제국을 150년 동안 '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그들을 '죽일' 수는, 즉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150년은 그들 위에 '왕'이 있는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11절에서 이해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었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었다' (Ap.

9:11). 잠언에 '메뚜기에게는 왕이 없으나 메뚜기는 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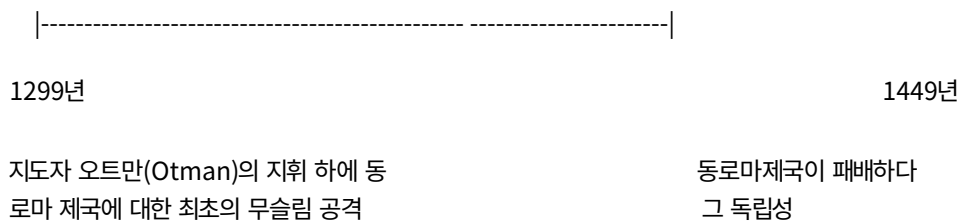
그들은 대열을 이루고 있다”(시 30:27). 예를 들어, 무슬림 침략자들의 “메뚜기들”은 파괴적인 작업에 고도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명령을 따르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수백 년 동안 그의 추종자들은 왕이나 중앙 정부 없이 다양한 그룹과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말경에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 제국으로 알려진 조직화된 정부를 설립했습니다. '무저갱의 천사'는 '사자', '봉사자'를 뜻하는 헬라어 뜻으로 '천사'라 불린다. 술탄은 이슬람교의 최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Abaddon'이라는 이름과 그리스어로 'Apoliom'이라는 이름은 '파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항상 오스만 총독들의 성격이었습니다.

성실한 성경 연구생들은 150년 전 이 예언의 성취를 조사한 결과, 이슬람교의 첫 '왕'인 오스만(Othman)이 서기 1299년에 동로마 제국의 문명 세계를 '고문' 하기 위해 첫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공격이 그해 7월 27일에 발생했다는 Edward Gibbons의 긍정적인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들은 1299년부터 1499년까지 정확히 150년 동안 간헐적인 공격을 받으며 전쟁을 지속했지만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큰 변화가 찾아왔다.

동로마의 황제들은 곧 독립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질 때까지 점점 더 약해지고 부패해졌습니다. 요한 황제가 1448년 10월 31일에 죽었을 때, 그의 형제들은 1449년 1월에 그들의 형을 새로운 황제로 선출하기 위해 겸손하게 터키 술탄 무라드 2세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터키는 자신들의 독립이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계시록의 복음, 페이지 62, 63 – Robert J Wieland)

- 5개월간 메뚜기 공격에 대한 과거 준수사항:



1449년 - 1299년 = 150년

현대 역사는 우리가 이 성경의 새로운 성취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구 국가들은 세계 테러 행위에 대해 무슬림을 비난하느라 바빴습니다. 9/11은 알카에다 조직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독립 언론은 '알카에다'가 전선 조직이고, 9/11은 미국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부 문제'임을 보여주는 많은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교도들은 미국과 미국에 질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겪는 거짓 비난과 공격에 대한 동맹국. 그러므로 이란 대통령이 권력에 반대하는 가혹한 발언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갈등에서 가톨릭 유럽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톨릭교인과 이슬람교인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나리오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전 1:9). 12세기 이슬람교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는 서구의 적들에 대항하는 십자군을 선동하는 공동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요한계시록 9장의 예언대로 “왕”을 둔 메뚜기들처럼 공격을 가할 것이다. 계시에는 메뚜기들이 죽이는 권세는 없고 오히려 괴롭히는 권세가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교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며 소위 기독교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할 성급한 공격을 감행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영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박해는 완화될 것이며 마지막 소식을 전파하는 일은 계속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언의 메뚜기 역할을 수행하는 무슬림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환난의 날을 “단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24) 예언에 따르면, 무슬림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구별하여 대할 것입니다: “땅의 풀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셨느니라” (계 1 :1). 9 : 4).

요한계시록 9장의 예언이 다시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무슬림이 미래에 행할 이 행동의 기간이 150일로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마지막 세대에 있는 것처럼, 이 날들은 더 이상 몇 년을 나타내는 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약 5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늘에서 두 번째 경고가 땅에 전달될 것입니다.

## 8장 -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 네 천사가 풀려났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라 하더라. 그리고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그 해와 그 날과 그 해에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군대 수는 이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전화번호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환상에서 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탄 자들에게는 불과 히아신스와 유향으로 된 호심경이 있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사람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꼬리는 뱀 같았고 머리도 있어서 그것으로 해를 끼쳤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및 보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돌과 나무의 우상에게 절하고, , 듣지도 걷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 9:13-21).

#### 황금 제단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고 그 안에 분향할 금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제단을 증거궤 옆 휘장 앞에 두고” (출 30:1, 3, 6). 둘 다 상징,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의 형상과 그림자니, 이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받았음이라. 이는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산에서 네게 보인 분을 따라라 하였음이니라” (히 8:5). 히브리인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 으며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니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 9:24, 8:1), 2). 성소는 휘장으로 분리된 두 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장막을 예비하였으니…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불린다. 둘째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라 일컬음을 받는 장막이 있으니” (히 9:2, 3).



그림 - 성소 (오른쪽, 제사장이 있는 곳)와 지성소 (왼쪽)

성소의 가구 중에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분향단은 분향단을 지성소와 분리하는 휘장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증거궤 옆 휘장 앞에 제단을 두라” (출 31:6). 요한은 참 성소에 있는 금 제단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모퉁이에서 한 음성이 나서” (계 9:13). 이것은 그곳에서 사역하는 누군가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의 성전에서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늘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느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 8:1, 2). 요한이 제단 뿔에서 들은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시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더라.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났으니

일과 월과 해를 정하여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 하였느니라 기사의 군대 수는 이억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효를 들었노라” (계 9:14, 16).

이 구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죽은 사람은 모두 이 전쟁에 투입된 기사 군대의 수와 같지 않습니다. 역사상 그토록 많은 군중이 군사 행동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은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결론지어진다.

예언은 전쟁을 벌일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 (계 9:14)에 갇혔음을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성경은 귀신들이 무저갱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들의 감옥이 거기에 있음을 시사합니다(누가복음 8:30, 31). 그러므로 언급된 장소는 귀신들이 실제로 갇힌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멸망을 자행하기를 위하여 막혔던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프라테스는 현재의 아라비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라크 대부분을 통과합니다. 성서 본문은 사탄의 천사들이 그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조장하는 것을 막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진리를 얼마나 잘 묘사하는가! 미국은 거의 10년 동안 이란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란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이다.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급속히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전쟁은 여섯째 나팔의 기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는 그 여자가 표시된 때까지 갇혀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귀신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이 환상에서 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탄 자들은 불과 히아신스와 유황으로 된 혼잡을 가졌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꼬리는 뱀 같고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를 끼치더라” (계 9:17, 19).

João는 자신이 알고 있는 요소를 사용하여 묘사한 전쟁 장치를 보았습니다.

당시 전쟁에 대비한 말은 적의 창이나 칼에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덮개를 씌웠습니다. 선지자에게는 금속으로 덮인 종말의 전쟁 기계가 그들과 닮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동하는 전함을 '전차'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요한이 전함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강화됩니다. 이것들은 발사될 때 탱크의 총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2010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언 기계는 초현대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탱크에서 발사체(총알)는 일종의 파이프인 대포에서 발사됩니다. 그러나 주앙은 총알이 나오는 기계의 머리가 넓고 사자의 머리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발사한 발사체의 파괴력은 이 세대 사람들까지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삼분의 일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것이 원자폭탄을 발사하는 핵탱크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탱크가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독립 언론인들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그러한 탱크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추측과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이 탱크가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게 될 전쟁

사용하면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은 그렇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파괴적인 전쟁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나팔의 때는 세상의 마지막 기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스스로 구원하도록 인도하려는 의도로 전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버지가 불순종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채찍을 사용하는 아버지와 비슷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그 순간까지 붙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선포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여섯째 나팔의 때가 끝날 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여 귀신과 금, 은, 동과 돌과 나무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그치라. 그들은 살인과 마술과 매춘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9:20, 21). 이 부류의 죄 중에는 금, 은, 동, 돌, 나무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이미 지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에 그들 가운데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각한 형상을 신으로 여기거나 단순히 신성과 성자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숭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든, 성서는 이러한 행위를 정죄합니다. “너는 조각한 형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4-6). 오늘날 형상 숭배자들 중에는 인기 있는 교회에서 이러한 관습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단 진리에 대해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께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그가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느니라” (행 17:30, 31).

여섯째 나팔에 관한 기록은 진리를 깨달은 후에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의한 행실에 머물러 구원의 보장을 얻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과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계 21:27).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이 정죄하는 행위, 즉 악행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에게 도움 없이 혼자서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복음은 인간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시합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이미 버릴 힘이 있다

약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십시오.

여섯째 나팔의 때가 끝날 때 악인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보내지는 마지막 초청의 형태로 능력있게 전파되는 때는 이 때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시록 기록의 순서는 바로 이 일, 즉 큰 외침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맹위를 떨치는 동안, 박해로 인해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즉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 28,19)는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시기에 하지 않았던 일을 환난의 시기에 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사도 교회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니라” (행 8:1, 4). 기억에 남는 오순절 축제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셨고, 그 결과는 컸습니다. 복음은 수십 년 안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골 1:2).

1:23).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더욱 풍성한 쏟아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 제9장 천사의 큰 외침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여섯째 나팔의 성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달하는 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처음 네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여섯 구절을 분리했습니다(계 8:7-12). 여섯 번째 책은 거의 세 장(Ap. 9, 10, 1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묵시록의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고전 15:51-53; 살전 4:15-17). 여섯 번째가 바로 앞에 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반역하고 죄 많은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지막 초대입니다. 진실한 성서 연구생이 이때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여섯째 나팔의 계시를 통해 그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은혜의 때의 끝에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모르게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너무 늦었을 때만 깨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 2:3, 4).

이전 장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의 첫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다음은 10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하늘의 아치가 있었고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펼쳐져 있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외치자 일곱 천둥이 소리를 냈습니다. 일곱 우리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일곱 우뢰의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 위에 섰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시며 하늘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그 안에와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것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있으니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는 날 그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계시록 10:1-7)

환상은 상징적인 것으로 입증되는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불기둥과 같은 발을 갖고 사자처럼 포효하는 천사; 일곱 천둥이 말함.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상징을 해석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유일한 안전한 방법은 성경을 해석자로 삼는 것입니다.

### 비전의 시간

요한계시록 9장은 제3차 세계 대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그 시와 날과 달과 해를 위하여 예비되었더라. 기사의 군대 수는 이억이었습니다. 내가 그 수효를 들으니... 그 사람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계 9:16-18). 10장에는 9장의 서술이 이어지는데 이때가 3차 대전이 한창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 머리 위에 천상의 활을 쓴 천사

“그리고 나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하늘의 활이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니라.”

(계시록 10:1) 성경에서 '천사' 라는 단어는 원문을 번역하면 'angelous'로 읽히며 '메신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였느니라” (갈 4:14). 요한은 하늘에 있는 아치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니 곧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와 및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는 이것이라 영원한 세대 여러분과 함께.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9:12, 13). 천사가 그의 머리 위에 언약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멘.” 그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고후 1:20; 갈 3:16; 히 8:6). 그분은 오직 그분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딤후 2:5). 기호의 다른 증거가 이를 확인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얼굴이 해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계 1:16). 10장에서는 발을 불기둥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마치 풀무에 단련된 것 같더라” (계 1:15). 본문에는 또한 천사가 구름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적 표현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기록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름에 가려진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사막을 통과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음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그 돌은 그리스도 시니라”(고전 10:1, 4).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름에 싸인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의 모든 상징은 그분을 가리킨다.

---

전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천사는 “...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외치매 일곱 우리가 소리를 발하더라” (계 10:2, 3). 성경적 맥락에서 “무언가에 발을 딛는 것”

통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도착함”을 상징합니다. 선지자 나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는 이의 발이 산을 밟고 있다.” (나 1:15). 따라서 계시록 10장에서는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오래 전에 하늘에 가셨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비전은 어떻게 성취될 것입니까? 그 대답은 바로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들이 대표됨을 보여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갈.

4:14).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인간 사자들의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이 요한의 환상을 성취하면서 세상에 좋은 소식을 선포할 것입니다. 상징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전파를 예언합니다.

그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 행성은 건조한 부분(땅)과 물(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함께 언급하신다.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옛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라” (출 20:11). 따라서 “두 발을 모두 밟고 계신 예수” 라는 표현을 언급하는 대표적인 상징주의를 통해 사용된 자원은 실제로 좋은 소식이 지구상의 모든 곳, 즉 대륙과 바다의 섬들에서 선포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상징을 통해 그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신 선언의 성취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

이런 의미에서 계시는 메시지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메시지의 본질과 그것이 주어질 능력도 제시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계 10:3)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먹이를 사냥하고 잡아먹기 직전에 “포효”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승리를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자의 포효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외침은 승리를 알리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성취하신 승리는 사탄과 그의 군대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으로 표현된 계시를 기초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3절).” 10장의 설명은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될 “복음”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내가 들으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에게 영원한 복음이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계 14:6). “사자의 부르짖음”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_\_\_\_\_

---

이 구절에서 요한은 “나는 다른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 즉 그보다 먼저 온 사람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8장에서 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아직 세 천사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음이라. 소리!” (계시록 8:13)

메모:

“그리고 내가 천사를 보고 들으니 …” 계 8:13

“ 다른 천사의 말을 들으니 …” 계 14:6

따라서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따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계시록 14:8)

“ 셋째 천사가 따라오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계 14:9)

그러면 한 번에 한 사람씩 순서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는 총 네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천사는 “장차 나팔 세 천사의 나팔 소리”를 선포합니다. 나팔 소리 세 개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둘 다 요한계시록 8장의 천사가 선포한 내용을 따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트럼펫:	네번째	다섯 번	금요일	제칠
Apoc의 천사. 14:	째 “천사…” “또 Apoc. 8:13	다른 천사” v. 6 “둘째 천사” v. 8 “셋째 천사” v. 9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8장의 천사는 넷째 나팔 이후에 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다음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세 나팔과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각각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돌아가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비유된 설교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영원한 복음” 을 이룹니다 (계 14:7). 메시지는 부끄러움 없이 큰 소리로(10:3; 14:7, 9)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은 “소심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 21: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직장, 우정 또는 기타 세속적인 것들을 잃을 가능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물러서고 신앙을 저버릴 때 이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소심한 사람들의.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가운데 있거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2개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यो”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 10:32, 33).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요한복음 14:6). 그분을 시인한다는 것은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십계명의 율법이 진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시인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그것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우리는 세상에 큰 권능으로 전파될 메시지를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그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Editora Advertência Final에서 출판된 다음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쟁투

- 미래를 밝히다

- 마지막 교황

- 믿음으로 의롭게 됨 - Vols. 나와 II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큰 소리로 이르되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임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가 그를 따르며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바벨론이여. 셋째 천사가 따라오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혼합함이 없이 그의 진노의 잔에 따르리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의 고통의 연기는 영원무궁토록 계속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도 밤낮 쉬를 얻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의 견인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6-12).

메시지는 먼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도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라” (롬 14:10).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의 형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계 14:7)는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전 12:13). 우리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와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사 11:1-3).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성품에 있어서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10).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웁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 매일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교훈을 실제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에 의해 변화됩니다.

이사야서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물리라”.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돕는 이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곧 진리의 성령이시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16-18). 예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든 바로 그 영이 우리에게도 보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받으셨던 것과 동일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장)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31). 이것이 천사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계 14:7).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마치고”(요한복음 17:4). 그는 순종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이 계신 그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삶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삶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다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의 뒤를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바벨론이여”(계 14:8). 바벨론(Babylon)은 혼란을 의미하는 바벨(Babel)이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그것은 현재와 미래, 즉 여섯째 나팔 때의 교회의 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면서 혼란스러운 이론을 설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사탄에 대하여 사용하신 유일한 무기인 “기록되었으되”는 인간의 교리로 대체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이성과 상식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심각한 오류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것은 진실과 오류를 뒤섞는 혼란스러운 이론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삼위일체 교리이다. 그것은 이집트인, 페르시아인, 바빌로니아인, 그리스인, 로마인이 믿었던 이교 신앙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기독교에 도입되고 교회 조직에 의해 영속되었으며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셋이고 셋이 동시에 하나라고 믿는 것은 이성과 상식에 어긋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며 4세기까지는 기독교 교회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시작한 기독교와 이교를 혼합하는 작업을 통해 교회에 도입되었습니다. 사도 시대 교회의 순수성은 이교 오류의 도입으로 손상되었으며, 이러한 혼합의 결과로 나온 종교는 제국의 보편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유니버설(Universal)은 카톨릭을 의미합니다. 제국이 로마였으므로 교회도 로마 카톨릭이 되었습니다. 비록 더 이상 사도들의 교회는 아니지만, 그들이 전한 순수한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사도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포함시켰습니다. 사실과 법적으로 이 이름은 사도적 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으며, 그들은 제국 종교의 고위 인사들에 의해 박해와 금지를 당했습니다. 진정한 “사도적” 교회는 사도들과 같은 경험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일, 가난, 박해를 경험하고 지도자들이 광신적인 박해자들의 광적인 분노에 희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국의 배도한 공식 교회로서 이교 바빌로니아인의 신앙을 채택하고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칭호인 바벨론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이 공식 교회를 떠난 모든 개혁자들은 다른 교회를 세웠는데, 비록 모교회에 도입된 오류 중 일부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교회의 원래 순수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바벨론과 교리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예는 일요일을 쉬는 날로 지키는 대중적인 가르침인데, 성경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에겐 진리가 섞인 오류를 가르치는 모든 교회가 포함됩니다. 이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교회 내에서 양 떼를 지키려는 열심으로,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와 같은 미신적인 진술로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적 권위의 부족을 보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소한 생각에만 제한을 두시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부여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망에 종속시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 마치 성서의 진리를 나타내는 특정한 표인 것처럼, 성서의 진리를 대체한다고 주장합니다.

참된 교회. 그러나 성경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24)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신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율법과 증거에 대하여! 만일 그들이 이 말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아침이 없으리라” (사 8:20). 만일 그들이 십계명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것을 짓밟고 그것이 더 이상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고 전파하면 그들에게는 아침이 없으리라. 그들은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땅의 아침, 의가 거하는 곳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류를 전파하는 교회, 즉 제도에 대한 구제책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고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버리고 각자 자기 나라로 가자. 그의 심판이 하늘에 사무쳤음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레미야 51:9; 계시록 18:4-

6). 오늘부터 이 메시지는 여섯째 나팔의 때에 특별하고 더욱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모든 진실한 사람들에게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따라오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분의 진노의 잔에 섞임이 없이 준비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계시록 14:9, 10)

우리는 이미 7장에서 그 짐승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 정부의 권위를 찬탈하여 **핍박하고 죽이는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그 권력은 교황으로 대표됩니다. 당신의 권위의 표시 - 일요일: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대변인인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출처: Our Sunday Visitor, Catholic Weekly, 1950년 2월 5일 (강조 추가).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은 교황을 경배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외견상 “부활”한 교황)를 제시할 때 경고의 이유가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기꾼 앞에 굴복할 것이다. 세계의 법과 질서를 거스르는 이 작은 신앙인들도 머리를 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손과 이마에 권위의 표를 받는 것은 교황의 날인 일요일에 일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진정한 휴식의 날로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른손은 일을 상징하는 표시이다. 성경에서 “내 손으로 그에게 대지 말라”는 표현은 “나로 그에게 행하지 말게 하소서” (삼상 18:17)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는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 깃발에서는 성경적 상징성을 차용해 주먹을 쥔 손의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이마는 의식, 즉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황권이 정부권력을 이용해 핍박하고 죽이는 권한이 없는 한, 그것은 '짐승'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는 묵시록에서 다시 한번 완전히 다음과 같이 식별될 것입니다.

“짐승” 이고 일요일은 “짐승의 표” 가 될 것입니다. 입법 당국이 일요일에 쉬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때,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키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여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포도주는 섞이지 아니한 그의 잔에 예비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또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느니라” (계 15:1).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재앙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집니다. 셋째 천사는 위협에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심판을 덧붙입니다. “그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20장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 20:14). 둘째 사망이 있다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 최후의 선고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느니라. 그들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0:11-13)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사람은 이 생명과 오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두 번째로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형벌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영원히 불태우도록 정죄하게 만드는 죄는 무엇입니까?

없음! 악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 4:8). 악의 행실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일을 통해 자신을 완성한 존재를 위해 사랑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자비롭게 그들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신 후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례하여 불사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히 타지 않을 것이다. “보라, 그 날이 불처럼 타오르는 날이 오리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오는 날이 그들을 태워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땅에서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할 날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마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말 4:1, 3; Ob. 1:16).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귀에 들리지 않아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의인과 악인의 무리가 익어 마지막 추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유예시간의 끝

“...그가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을 땅을 밟았으니 그리고 그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외치자 일곱 천둥이 소리를 냈습니다.” (계시록 10:2, 3) 일곱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 전하는 일을 마치고 소리를 지르며 이 구절에서 예언은 은혜 기간의 끝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과 용서하는 자비를 받아들일도록 확신시키기 위해 그분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후에, 마침내 부르심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소리를 지르고 일곱 사람의 때가 이르렀다.

천둥 이 소리를 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과거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한번은 예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후,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어 이 소식을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28, 29). 아버지의 음성은 천둥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한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둥이 문자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언어는 상징적입니다. 숫자 7은 완전한 것,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주일의 날이 있습니다. 7일은 완전한 한 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우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미래의 때에 그리고 그분의 음성의 능력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임을 다음 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하늘에 있느니라” (히 12:26). 계시록에서는 이 음성이 “언제” 들릴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은혜가 끝나면 하나님은 땅의 범죄한 주민들에게 진노를 부어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5:1)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소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번쩍였다. 또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 사람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었으니, 크고 큰 지진이더라” (계 16:17, 18).

	일곱 가지 재앙	일곱 번째 재앙
	-----	
시간 종료		하나님의 음성
신성한 은혜의		땅을 흔든다

“이루었다” (계 16:17). 이 말에는 의미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설립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가 나타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수년 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땅에서 자신의 것을 모으시는 미래의 순간에 이르러 요한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 19:7). 이로써 우리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처럼? “그에게는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이니라” (계

---

19:8).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를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수고하며... 기다리느니라...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19, 22, 23). 그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 교회가 악을 선택하다가 선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거룩함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걸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 즉 땅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를 찾으러 하늘에서 떠나신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 10장 일곱째 나팔

“그리고 일곱 우레의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일곱 우레의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즉 바다와 땅 위에 섰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는 날 그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계 10:4-7).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싶었으나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해에 숨겨져 있는 정보란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순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라고 아는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봉된 정보는 그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제시되며, 그분은 말씀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령을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신 순간을 언급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4). 그러나 다음 구절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전하신 계시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5장)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행 1:6, 7). 재림의 날과 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계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가 일곱 우레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세주와의 만남을 위한 준비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미루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 편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경우에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를 비유하면 구원은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타는 것”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입장에서선 선지자가 재림의 날짜를 보고하는 것을 막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마음의 반응이 시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수락이 있었나요 아니면 거부가 있었나요?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비록 에녹이 행복에 들어가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300년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순종은 기회주의적 관심이나 보상에 대한 열망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장의 환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종들입니다” (7절). 이 구절에서는 시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곱 우렛소리 같은 소리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소리로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그 때를 알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그를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다시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이 소식을 들은 군중은 우리가 옳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28, 29). 장래에도 예수님 당시와 같이 악한 무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천둥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구주께서 오실 때를 알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성서가 밝혀 주듯이, 상징적으로 나팔 소리에 비유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 직후, 충실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불멸의 영광을 입고 구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오심을 사모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자리라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을 감으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기록된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 한 말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51, 52, 54).

“주께서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1:1).

4:16, 17).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요한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와 땅을 멸망시키는 악한 자들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곧 장차 오실 것과 친히 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감사하노니 당신의 큰 힘과 통치. 민족들이 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와 선지자들과 종들과 성도들과 및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나더라.” (계시록 11:15-19)

하늘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땅으로 향할 자리를 잡듯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휴거시키시며, 셋째 천사의 위협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큰 우박의 형태로 쏟아집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나더라” (계 11:19).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가 나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큰 자를 기억하사 진노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 사람들 위에 내리니 곧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돌들이더라. 우박 재앙이 심히 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니라” (계 16:18-21).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측정치로 34킬로그램에 해당합니다. 그런 구경의 돌은 확실히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이 땅에서 그들을 찾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박해와 고난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수천 년 동안의 죄와 죽음이 지나고 슬픔과 고통이 끝날 것이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 17). 아, 오늘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계시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세대이다!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들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해도 더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 7:16, 17; 21:4).

친애하는 독자 친구여, 미래는 이 책을 통해 명확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당신에게 공개되었으므로 당신은 오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허락된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 십계명을 범한 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할 것이요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0, 21). 이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이며,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라는 초대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기도로 그분께 이야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등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친교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일은 오늘 공개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과 생명이시며, 사탄은 그분의 반역이요 죽음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지니라” (계 3:22).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자 기도입니다. 아멘!

저자와 편집자.